

「신학의 사조」 5 자유주의

<12 강좌> 계획 -- 어거스틴에서 포스트-모던까지

-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. 어거스틴 | 2. 토미즘 | 3. 종교개혁 |
| 4. 경건주의 | 5. 자유주의 | 6. 근본주의 |
| 7. 신정통주의 | 8. 실존주의(볼트만) | 9. 정치신학(몰트만) |
| 10. 해방신학 | 11. 환경/생명신학 | 12. 포스트-모던 신학 |

I.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

1. 17-18세기 -- 과학의 발달(뉴턴), 합리주의(+비판철학) 등장

- . 자율성과 합리성이 타율적 권위와 (제시된 가르침에 대한 동의로서의) 신앙에 도전
- . 계몽주의, 프랑스 혁명, “브루조아지” 등장
- . 자연과 도덕에 관한 합리적, 분석적 사유 -- 광범위한 지배

2. 19세기, “자유주의”와 “개인주의” 등장

<<< 자족하는 자율하는 개인, 각 개인의 초월적 이상적 조화>>>

- . 이것은 18세기의 합리주의(+자유주의)에 19세기 초의 “낭만주의”가 가미된 부산물이다.
- . 배타적인 “이성만”이 아니라 이제 관심은 “삶”(life)로 폭이 넓어진다.
- . “자유,” “이성”에 의한 자율과 스스로 책임지는 “자아”

. “個人主義”라는 神話의 등장 -- 각인의 자아는 자유롭게, 그 자신의 내면의 법칙을 따르기만 하면, (그 사회도 전체적으로) “이상적, 조화”에 이른다는 신념, 이것은 “자아”가 선험적, 초월적, 저 세상적 실재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.

. 이것이 “Liberty”이다. - 각개인이 자신의 법칙에 충실하면, 그 사회는 이상적인 조화에 이른다는 신화적 신념에 기초.

. “Liberty” --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여 생각하기 시작

- . 사회는 자유방임적 각 개인의 조합 (전적 자유는 만인의 평등에 이른다는 신념에 기초)
- . 국가= “야경꾼” (사회발전에 방해될 때)
- 개인의 합의에 기초, 더 이상 “신적 질서” 아니다.

. 자유 방임주의에 대한 내부의 저항 -- 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

- . 정치 -- 민주주의 운동 (평등, 우애의 질서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)
- . 경제 -- 사회주의 등장 (경제적 평등의 질서)

2. 교회(평신도)를 향한 자유주의의 도전

. 세속적 권위와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생활에 대한 교회의 간섭도 문제시됨 -- 교회는 “私生活”에만 관심하라!

. 가톨릭 교황의 저항 -- “자유주의는 시민 사회를 신의 권위에서 이탈시키는 모반”이라는 식의 비판을 계속하다.

3. 자유주의가 준 신학적 도전/과제

- 개인의 절대적, 포괄적 자유, 자율을 인정하면서 어떻게
- 교리/기독교 신앙, 예수의 메시아성, 특유성의 합리성(신뢰성)과
-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해명할 것인가?

II. 자유주의 신학

1. 실라이에르마허(Friedrich D. E. Schleiermacher, 1768-1834) -“근대 신학의 아버지”

1) 연보 (생략)

2) 주요 저작

『종교론: 종교를 경멸하는 교양(문화)있는 이들에게 주는 강론』

『크리스마스 이브: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대화』

『기독교 신앙』

3) 주요 사상

(1) 신학 방법론의 전환 -- 위,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서 출발 (2) 종교(신앙)
의 본질 = “절대 의존 감정”, “sense and taste for the infinite”

*/ ** 죄/불신앙=신-망각증, 외곡

1> 자아= act of self-consciousness --> (경건한 자의식= God-consciousness)

2> 합리적 체계의 지식, 혹은 고상한 도덕; 3> 위는 보편적인 종교 현상/경험

(3) 역사적 예수 = 자아-의식의 모델, 소개(창시)자, 중보자(보전, 전달자)

모든 점에서 인간과 동일하다. 단지 그 신-의식의 지속성과 정도의 차이

(4) 예수의 구속 사업, 메시아성 근거 = the persistent & perfect force of God
-consciousness의 역사적 전달자

예수는 본성에 있어서 신이 아니라 機能에 있어서 신이다.

(물론 모든 인간은 본성에 있어서 신성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!)

(5) 교회=역사적 보존, 전달, 실천의 장(<--모라비안 계통, Hale대학에서 수학)

이에 그를 좋아하던 피테가 불평을 떠뜨리다.

(6) 부활, 재림 = 신-의식의 역사적 완성

십자가=종교적 의미 없다/ 단지 그것은 “sympathy with misery”

곧 자신의 복을 나눠주려는 의지의 표상이다.

(7) 「역사(-비평적) 예수 탐구」의 신학적 필요성 역설

the awakener of faith (신-의식) = 예수

그와 그 후의 공동체 연속성의 근거 = communication in/ through history
(historical events/ activities)

역사 = 예수(독특한 기독교 신앙의 뿌리)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

“역사적 예수에 대한 지식”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신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
한다.

<<<결과적으로>>>

1) < 역사와 신앙>의 문제가 제기되다 ...

2) */ ** // 기독교의 절대성 = 해명을 다각도로 시도함///

2. 리츨(Albrecht Ritschl, 1822-1889), “도덕적 가치 (판단)”의 신학

1) 예수는 “이 세상적 하느님 나라”의 첫 시발자, 예수는 이웃 사랑=하느님 사랑의 구체적 실현(모범)

2) 예수의 신성=교회의 신앙에 의한 가치 판단의 선언,
역사적 사실, 이성적 경험(객관적 논증 가능) -- <아니다>

3) 기독교 = (초점이 둘 있는) 타원

(1) 역사적 예수, 하느님 사랑의 계시,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

(2) 교회=예수가 위하여 죽은 영적, 도덕적 공동체,
인간 사회를 하느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공동체

./*/ 죄=이기심(하느님 나라가 아닌, 열등한 가치 추구)

4) 신학의 두 기둥 -- 義化와 和解

<1>의화<=>인간의 의기심 극복, 하느님 나라를 향한 소명

자신의 덕성 개발, 사회적 봉사

<2>화해<=>하느님, 모든 신자들의 온전한 조화 상태

3. 자유주의의 운명

<한 때>

1. 미국에서 “사회복음 운동”을 전개
2. 기독교 사회주의 탄생

<1차 대전>

1. 유럽에서는 거의 종말을 고함